

추석 대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전쟁 이유 있었네

일부 상인 주차장 불법 점령 '암체 장사'

하루 4만명 몰리며 복세통 시민들 주차 못해 큰 불편 곳곳 과도한 호객 행위도 관리사무소는 구두 경고만

호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부 '암체상인'의 불·편법 장사 행위가 만연해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암체상인은 가족이나 부족한 시장 주차장을 불법 점령한 뒤 장사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손님들 상대로 한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행태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침다못한 이용객과 도매시장 내 일부 상인들은 이에 대한 개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소측은 상인의 생계와 연계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두 경고만 반복하고 있다.

26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광주 서구 매월동에 지난 2004년 개장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하루 농산물 1314t, 수산물 135t 이 거래되는 호남권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하루 평균 1만2000여명이 방문하고 차량은 1만여대가 출입한다. 명절을 앞둔 요즘에는 방문객이 평소보다 3~4배 가까이 증가한 최대 4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은 방문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상 842면, 지하 247면 등 총 1130면뿐이어서, 시장 내 주차전쟁은 일상적인 모습이 된 지 오래다.

더욱이 일부 상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 중 일부를 자신의 임시 점포로 확장해 장



추석명절을 앞둔 26일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을 일부 '암체상인'들이 장사공간으로 불법 선점하면서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를 하면서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실제 이날도 채소동과 청과물동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상가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내려와 과일, 마늘, 양파, 고구마 등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또 일부 상인들이 채소동과 청과물동 출입구 앞에서 장사를 하면서 방문객과 상인들이 뒤엉켜 혼잡을 빚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 상인들은 지나가는 손님들 상대로 웃을 잡아끄는 등 과도한 호객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부 상인들은 자동차 전용

주차장 내에 오토바이와 손수레 등을 세워놓고, 종이박스 등 각종 용품을 적재하는 등 임시 차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불법으로 점령된 주차면만 50여곳에 이르렀다.

상인들의 주차장 불법 점포에 애꿎은 손님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명절 대목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탓에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차공간 찾기 못한 고객들이 인근 길가는 물론 인도까지 불법 주차를 하면서 시장 인근이 거대한 불법 주차장이 되고 있다.

이날 시장을 찾은 문호찬(52)씨는 "주차

할 곳을 찾지 못해 30분 이상 헤맸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면서 "특히 상인들이 주차공간을 독점하고 장사를 하는 게 말이 나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차면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한 상인은 "불법인 줄 알았지만 단속이 심하지 않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도 좋아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우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팀장은 "매일 오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인의 생계와 관련돼 있어 구두 경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난 21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광주를 방문한 네팔 학생 등이 학운초등학교 학생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 민주·인권 정신 잘 배우고 갑니다”

5·18유족회, 네팔 교사·학생 초청 역사 현장 견학

“광주 민주·인권 정신 잘 배우고 갑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준식·이하 유족회)가 네팔 타라스콜 교사와 학생을 초청해 광주 5·18 정신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족회 청년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타파 비엔슨(12)군과 판데이 로지나(여·29·교장 겸임) 교사, 네팔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 이해동씨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광주에 머물며 국립5·18민주묘지, 옛 전남도청 등 5·18 관련 역사의 현장을 견학했다.

이들은 또 광주 학운초등학교를 방문해 네팔-한국 학생들간 친분을 다지고 네팔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이야

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유족회가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피해의 참상을 전해주고 마 단꾸어 지역 타라스콜 북극활동을 지원하며 맺은 인연이 계기가 됐다. 유족회는 지난 2015~2016년 타라스콜 재건을 지원했으며, 현재 유치부·초등부 포함 7학급 85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타파 비엔슨군은 “지진이 났을 때는 학교 건물이 다 무너져 양철통에 앉아 공부를 했는데, 5·18유족회의 도움으로 지금은 근처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됐다”며 “광주가 5·18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지금은 좋은 도시가 된 것처럼 네팔도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방문소감을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

영광군의원 음주운전 적발

영광군의회 A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의원은 지난 20일 밤 9시30분께 영광읍에서 술을 마신 뒤 군남면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목격한 군민의 신고로 군남면 포천교 앞에서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0%로 측정됐으며, A의원은 재혈측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A의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정을 의뢰했다. 결과는 오는 28일께 나올 예정이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죽어버린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 자살 방조 무죄



○대법원이 부부 싸움 후 화가 나 ‘죽어버린다’고 말한 남편에게 제초제가 든 병을 건네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에게 무죄를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S(여·6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S씨는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해 ‘죽어버린다’고 말한 남편에게 ‘이거 먹고 꼭 죽어라’며 제초제가 담긴 음료

수병을 건네 자살에 이르게 했던 것.

○이번 재판에선 남편이 숨지기 전 작성한 ‘S씨가 제초제를 갖다줬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와 녹음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메모와 녹음 진술은 S씨가 농약을 건네줬다는 간략한 내용 뿐이고 농약을 건네준 시기와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은 담겨있지 않아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박진희기자 lucky@kwangju.co.kr

“5·18때 국방위원장이 위کم 사령관에 도청 진압 미리 알렸다”

5·18재단, 글라이스틴 대사·위کم 연합사령관 회고록 분석 발표

80년 당시 한국 정부는 문형태 국회 국방위원장을 통해 존 위کم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미리 전남도청 유혈 진압작전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미국측에 제안한 중재요청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의 판단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한국 시민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군부에 의한 통치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5·18 당시 월리암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와 존 위

کم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의 회고록을 분석한 보고서 ‘두 미국 관료의 한국 정세 인식과 광주항쟁 : 월리암 글라이스틴과 존 위کم의 회고록 분석’을 2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박정희 사망 후 한국사회가 정치발전과 민주화로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시민사회가 미성숙해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군부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کم은 회고록에 “문형태 국방위원장이 5월26일 급히 나를 찾아왔다...그는 군 병력이 내일 아침 일찍 광주시내로 재진입할 것이며...불가피하게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에 가장한 축복이 될 것이다”고 적고 있다. 군 진압의 당위성을 지지한 것이다. 화순 출신 문 위원장은 1968~1970년 합동참모의장, 7~10대(1971~1980년)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글라이스틴은 윤상원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 요청한 미국의 중재를 거절한 까닭에 대해 “진압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내가 나서더라도 (중재에) 성공할 수 없다는 생

각이 들었다”고 밝히며 “요청을 한 학생(윤상원)이 도청을 사수하려던 무장투사 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내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고 안심했다”고 기술하며 광주항쟁을 급진사회운동의 하나로 바라봤다.

회고록을 분석한 최용수 비상임연구원은 “5·18 당시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 수립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크게 미국 대사,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 CIA 한국지부장으로 CIA 한국지부장은 5·18 직후 사망해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두 고위급 미국관료의 회고록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의 역할 등을 조명하는 2차 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부안 숙박시설
(모텔) 매매.임대

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직접 운영시 월 수익 2,000만원 가능

(2개동 룸 43개)

감정가 16억
매가 9억 (1개동 매매시 5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
(주택가능, 펜션, 모텔 적합)

010-6670-9800

상무지구 상가
매매

시청 1분, 금음가대로변
내부깨끗 / 주차 가능

8층 중 4층 (45평)

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용7천)

010-6670-9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8천8백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노후대비 최적합

1)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1층
실면적 34평 (코너)
감정가 16억 → 최저가 5억7,700만

2)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3) 광산구 신가동 (4층상가건물)
토지 76평 건 192평
감정가 7억1천 → 최저가 7억1천

4)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5) 남구 주월동 (4층 상가주택) 코너
토지 71평 건물 180평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6) 북구 오치동 (3층 빌라)
토지 67평 건물 90평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4,800만

1) 총남 태안 (4층 콘도) 바닷가 1분
토지 831평 건물 1,040평
감정가 40억 → 최저가 9억4천

1) 총남 태안 (4층 콘도) 바닷가 1분
토지 831평 건물 1,040평
감정가 40억 → 최저가 9억4천

3) 군산시 소룡동 (2층 상가)
토지 204평 건물 270평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4) 화순 도곡 (5층 호텔)
토지 617평 건물 856평
감정가 26억 → 최저가 14억8천

5) 화순 도곡 (3층 무인텔)
토지 995평 건물 991평
감정가 38억 → 최저가 27억

6) 전북 고창 흥덕면 (숙박시설)
토지 454평 건물 464평
감정가 7억9천 → 최저가 3억9천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7384-7800